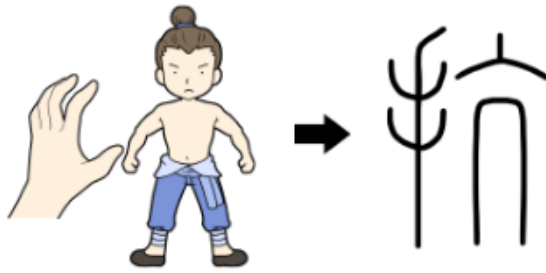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抗

겨를 항:

抗자는 '막다'나 '대항하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抗자는 手(손 수)자와 亢(오를 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亢자는 사람이 나무에 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오르다'나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높다'라는 뜻을 가진 亢자에 手자를 더한 抗자는 '손을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손을 높이 들어 올린다는 것은 무기를 들어 적에게 대항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抗자는 '대항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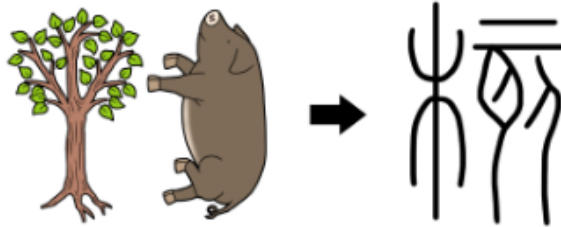
抗

소전

抗

해서

회의문자①



核

씨 핵

核자는 '씨'나 '핵심', '사물의 중추'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核자는 木(나무 목)자와 亥(돼지 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亥자는 팔다리를 잘라 가공한 '돼지'를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알맹이만 남았다는 뜻이다. 여기에 木자가 더해진 核자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의 알맹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核자는 과일의 '씨'를 뜻하지만, 과일의 중심에 씨가 있듯이 어떠한 사물의 '핵심'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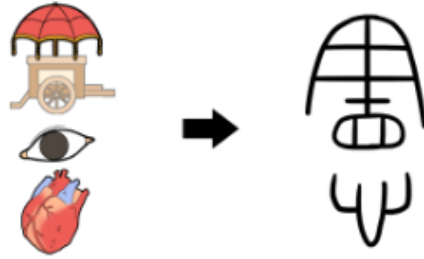
核

소전

核

해서

회의문자①



憲

법 헌:

憲자는 '법'이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憲자는 宀(집 면)자와 丰(예뿔 봉)자, 目(눈 목)자,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금문에 나온 憲자를 보면 우산 아래에 目자와 心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마차의 차양막 아래로 주변을 감시하는 눈을 표현한 것이다. 차양막이 있는 마차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타던 것이다. 그러니 금문에서의 憲자는 백성들을 매서운 눈으로 감독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전에서는 차양막이 宀자와 丰자로 표현되면서 지금의 憲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백성을 감시하는 모습을 그렸던 憲자는 점차 '법'을 뜻하게 되면서 지금은 한 국가의 기본 법칙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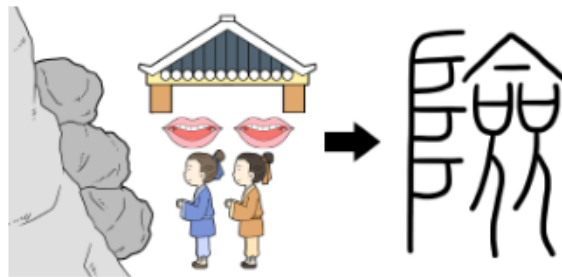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險

험할 험:

險자는 '험하다'나 '위태롭다', '험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險자는 阜(부 언덕 부)자와 僉(다 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僉자는 '모두'나 '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침→험'으로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險자는 본래 험준한 산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러니 險자에서 말하는 '험하다'나 '위태롭다'라는 것은 지세가 험준한 산의 위험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소전



해서

상형문자 ①



革

가죽 혁

革자는 '가죽'이나 '퍼다', '고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革자는 동물의 가죽을 그린 것으로 금문에서는 총 두 가지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하나는 동물의 가죽을 펼쳐놓은 𠂔 모습을 그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손으로 동물의 가죽을 펼치는 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두 종류 모두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단계를 표현한 것이다. 예로부터 동물의 가죽은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었다. 그러니 革자는 필요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가죽을 펴고 무두질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革자가 皮(가죽 피)자와 구별이 되는 것은 가공단계의 가죽을 그린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퍼다'나 '고치다'와 같은 뜻도 파생되어 있다.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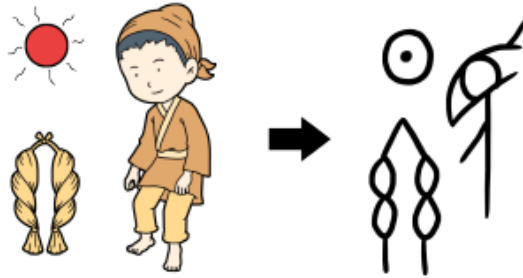
革

소전

革

해서

회의문자 ①



顯

나타날
현:

顯자는 '나타나다'나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顯자는 𠂔(드러날 현)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햇볕에 실타래를 널어 말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드러나다'나 '밝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顯자의 금문을 보면 햇빛에 널은 실타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태양이 밝게 빛나는 곳에서는 사물이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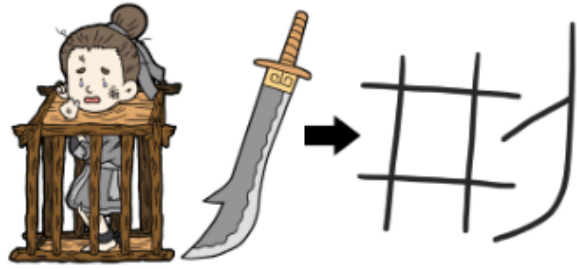
顯

소전

顯

해서

회의문자①



刑

형벌 형

刑자는 '형벌'이나 '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刑자는 开(평평할 견)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刑자의 금문을 보면 본래는 井(우물 정)자와 刀자가 결합한 형태였다. 우물과 칼이 '형벌'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실 여기에 쓰인 井자는 죄수를 압송하거나 가두어 두던 나무 우리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刀자가 더해진 刑자는 죄수에게 벌을 내린다는 뜻이다. 소전에서는 井자가 开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刑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金文

小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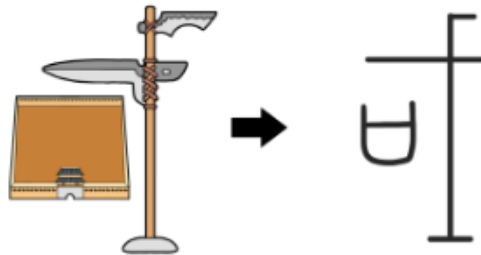
해서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或

혹 혹

或자는 '혹시'나 '만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或자는 戈(창 과)자와 口(입 구)자,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戈자는 고대의 창을 그린 것으로 '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口자가 더해진 或자는 창을 들고 성(城)을 지킨다는 뜻이다. 口자를 성벽으로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두 개의 획이 더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경계선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或자는 이렇게 성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나라'를 뜻했었지만, 혹시 모를 적의 침입을 대비한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혹시'나 '만약'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口(에운담 위)자를 더한 國자가 '나라'를 뜻하고 있다.

갑골문

金文

小篆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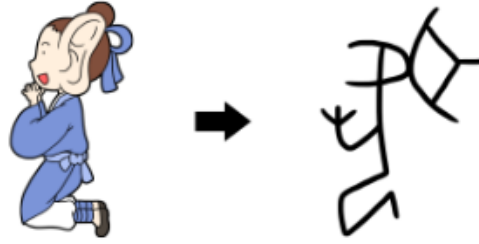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혼

혼인할
혼

혼자는 '혼인하다'나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혼자는 女(여자 여)자와 혼(어두울 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혼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고대에는 어두운 밤에 결혼식을 치렀다고 한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귀를 쫓긍 세운 사람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신랑이 오는 발걸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글자는 후에 '어둡다'라는 뜻을 가진 昏(昏)자와 결합하여 '결혼하다'라는 뜻의 혼자가 되었고 문밖으로 귀를 기울이던 모습은 門(문 문)자와 결합해 '듣다'라는 뜻의 聞(들을 문)자가 되었다.

혼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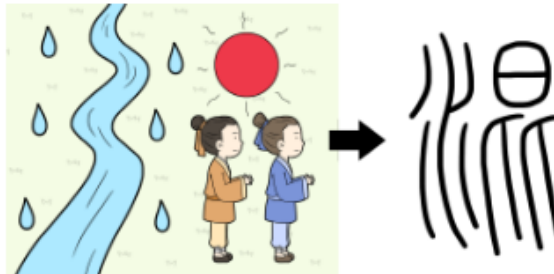
혼

소전

혼

해서

회의문자①



혼

섞을 혼:

혼자는 '섞이다'나 '합하다', '혼탁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혼자는 水(물 수)자와 混(형 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혼자는 태양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벌레'나 '뒤섞이다'라는 뜻이 있다. 혼자는 이렇게 '뒤섞이다'라는 뜻을 가진 혼자에 水(물 수)자를 더한 것으로 "물이 뒤섞이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상류의 맑았던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게 되면 혼탁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혼자에는 '섞이다'라는 뜻 외에도 '흐리다', '혼탁하다'라는 뜻까지 파생되어 있다.

혼

소전

혼

해서